

70년대 출판된 의료인류학의 대표적 입문서

조지 M. 포스터 외 지음 「의료인류학」

김은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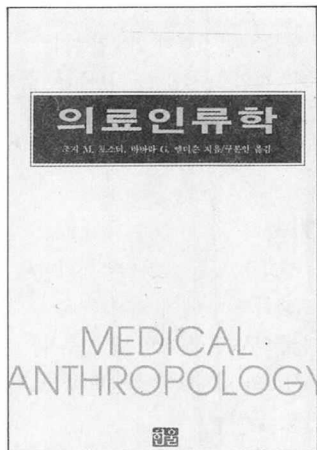
이대강사·인류학

문화 즉 의미와 관념체계 내에서 살고 있는 인간에 대한 연구라는 문화인류학이 우리나라에서 흥미로운 분야로 인식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생소한 학문이다. 더욱이 인류학의 하위분야인 의료인류학은 더욱 생소하다. 그러나 최근에 일상적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기의 삶을 설명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면서, 그리고 일상인들의 삶의 정치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게 되면서 문화상대주의 혹은 인류학적 접근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맥락하에서 사람들의 일상에 그 통제력을 높여가는 의료에 대한 인류학적 관심은 우리 사회에서 시급히 요청되는 부분이라고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의료인류학이란 인간의 몸을 통한 경험들, 특히 그 중에서도 몸의 일탈성 혹은 비정상성의(병·질병의) 체험, 이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정치적 의미와 관념들, 그리고 그것들을 둘러싼 해결기제인 치유(의료) 제도들을 다루는 인류학의 하위분야이다. 인류학에서 비서구 사회나 전통사회에서 병이나 재앙으로 인한 몸의 일탈(비정상) 상태는 종교나 정치의 영역에서 다루어졌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의료는 병을 관리하는 하나의 독립적인 제도로서 존재하고 의학적 지식은 과학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인류학자들은 현대의료역시 사람들의 사회관계를 개념화하고 정의하고 관리하는 강력한 세계관을 제공하는 하나의 문화현상이고, 권력관계임을 밝히고 있다.

건강과 병, 문화현상 시각에서 살펴

포스터와 앤더슨의 「의료인류학」은 의료인



류학이 하나의 하위분야로 자리를 잡는 70년대에 출판된 의료인류학에 관한 개괄적인 입문서이다. 이 책은 1970년대말까지 출판된 광범위한 인류학자들의 민족지와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의료인류학의 다양한 주제들을 설명해내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의료인류학이란 분야를 정의해 내고 있다.

건강과 병에 대한 연구로 의료인류학을 정의하는 포스터와 앤더슨은 건강이나 병은 생물 생태학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인간의 병에 대한 경험은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관련된 생문화적(biocultural)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이들은 전통적인 비서구 세계의 보건의료(전통사회의 병인론, 치유자인 무당과 주술가의 역할, 치유자와 환자 그리고 환자를 포함한 공동체와의 관계)와 근대적 서구 세계(병과 질병의 관계, 병행동, 병역학과 환자역할,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병원제도 그

리고 의학교육), 양쪽의 보건의료 측면을 개괄하면서 하나의 문화현상으로서 건강과 병에 관한 제도들이 갖는 공동성을 추출해내고자 한다. 포스터와 앤더슨은 보건의료체계에 있어서 서구와 비서구 사회에는 차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성이 있고, 이 공동성을 비교하는 것이 차이를 강조하는 것보다 문화를 이해하는데 더 유용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이들은 인류학이 갖는 응용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총체적 접근과 문화상대주의 입장을 갖는 인류학자들이 어떻게 수혜자 중심의 보건의료제도나 계획에 참여하여 공헌할 수 있는지를 기존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의료인류학에 관한 참고서가 전문한 우리나라에서 포스터와 앤더슨의 책은 인류학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그리고 공중보건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교과서이다. 이 책은 서구의료와 전통의료, 그리고 무속신앙이 공존하는 우리나라에서 병이 만들어내는 사회관계들과 환자, 가족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를 이해하는데, 병·의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의 건강추구행위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의 병·의원제도와 치료자인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한의사와 무당들의 행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용어번역 오류 속에 티

그러나 풍부한 사례와 많은 참고문헌을 동원한 이 책은 인류학 전공자의 도움없이 읽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을 갖는다.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대신에 각각의 주제가 충분히 맥락화되어 있지 못하

기 때문에 인류학 민족지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 책이 갖는 또다른 문제점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 책에는 진화주의와 생태학, 그리고 기능주의적 설명들이 절충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장이나 부분을 독립적으로 읽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전체를 읽어 나가는데 읽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이론적인 비일관성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주제를 가지고 있고, 또 각각의 의료인류학적 주제들이 나름대로 독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자가 혹은 강의자가 이러한 단점들을 고려한다면 참고서나 교과서로 쓰는데 전혀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이 책이 갖는 이론적인 비일관성이나, 의료 특히 서구의료가 갖는 정치적인 측면 그리고 문화접촉이 시도되면서 일어나는 서구의료와 전통의료간의 갈등, 그리고 문화인류학자가 의료 혹은 개발사업의 영역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 당면하는 문제들에 대한 경시는 저자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80년대와 90년대 (의료)인류학자들에게 과제로 떠넘겨진 것들이다. 이 점 또한 강의자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번역상의 오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책은 이미 기존 인류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용어들을 새로운 용어 특히 한자어로 만들어 쓰고 있고, 많은 인류학자의 이름이나 지명들이 통상으로 발음되거나 통용되는 것과는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한울 / A5신 / 462면 / 12,000원

詩話

사랑 그 그리움의 샘

박을수 저 / 신국판 / 7,000원

본서는 많은 시조작품 중에서 서화담과 황진이, 박신과 홍장, 성종과 소춘풍 등 詩話 11화에 담긴 애뜻한 로맨스가 작품과 함께 다루지고 있다.

시조로 和唱한 시화들을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현대적 비평과 감상을 곁들여 수록하였으며, 전공자를 위하여는 정확한 연구자료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자료들의 고증과 정확한 해설, 참고사항을 부록으로 덧붙여 놓았다.

한국학전문 도서출판

古代·高麗篇

韓國儒學思想史

최영성 저 / 신국판 / 10,000원

본서는 유학사상이 우리 역사의 여러 방면에 어떻게 기능하였는가 하는 점을 중시하고, 그 사회적 기능과 현상에 대해 충실히 밝힘으로써 궁극적으로 유교의 본질과 응용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아울러 學究적이고 理智적인 색채를 강하게 풍겼던 유학사의 서술방법에서 탈피함으로써,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0-391, 서울 중구 장충동1가 48-24

河西 金麟厚의

詩文學 研究

조기영 저 / 신국판 / 9,000원

본서는 16세기 걸출한 도학자인 하서 김인후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그의 시문학 작품에 나타나는 세계인식의 면모를 고구하였으며, 이러한 인식의 기반이 어디에서 출발하고 다른 도학자의 경우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조선시대 도학자들의 보편적인 세계관-자연, 학문, 현실세계에 대한 인식의 양상과 이것들을 나타내는 시적 표현의 범주를 구명하고 있다.

전화 279-8161~3, 팩스 272-8823

韓國古小說批評資料集成

류탁일 편 / 신국판 / 15,000원

1. 본서는 조선왕조실록의 소설관련 기사와 각종 문헌에 실린 고소설 관계 題辭, 論評과 작품에 붙는 序文·跋文 등을 연대별로 배열하였다.
2. 작자나 독자들의 所感과 雜記 등을 수록 작품의 이름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였다.
3. 소설의 刊記, 版權紙, 廣告 등을 서점별로 영인하여 실었다.
4. 특히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자료를 첨부함으로써 폭넓은 논문의 소재를 제공하고 있다.

이세이문화사